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톺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 |
|--------|--|
| ●문서번호 | 지역언론톺아보기2022-03 |
|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 ●제 목 | [지역언론톺아보기] 부산 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롯데 측에 책임 묻고, 부산시 대책도 점검해야 |
| ●모니터기간 |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
| ●날 짜 | 2022년 3월 25일 |

부산 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롯데 측에 책임 묻고, 부산시 대책도 점검해야

민락동 미월드 폐장(2013년) 이후 10년 만에 부산에 테마파크 시설이 개장한다. 롯데월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흘간 사전 운영 기간을 거친 후 31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형준 부산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오시리아선 조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하 롯데월드 부산)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이었다.



△ 롯데월드 부산 개장 관련 3월 17일자 방송3사 보도(KBS부산, 부산MBC, KNN 순)

공영방송인 KBS부산과 부산MBC는 롯데월드 부산 측의 홍보성 보도자료에 기반한 리포팅을 보여줬다. 먼저 KBS부산은 2분 18초 길이의 리포팅에서 1분 20초를 롯데월드 부산을 홍보하는데 할애했고, 이어서 부산시와 롯데 측의 교통 대책을 언급했다. 롯데월드 부산 개장에 대해선 나무 모양 조형물, 주요 놀이 기구까지 세세하게 짚어줬으면서, 교통 대책은 추가 설명이나 비판 없이 나열해 아쉬웠다.

부산MBC는 관련해 2건의 기사가 있었다. 먼저 17일에는 <롯데월드 이달 말 개장 “부산 관광즐거워진다”>에서 부지의 규모, 놀이 시설 종류, 핵심 놀이 기구 등을 소개했고,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는 리포팅 말미에 한 문장으로 전달했다. 이어 18일, <부산시, 혼잡 우려 부산 롯데월드 교통 점검> 단신 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롯데월드 내부를 둘러보는 영상과 함께 부산시의 교통 대책을 전달했다. 롯데월드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교통 점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 롯데월드 부산 개장에 따른 교통대란 대책 전달한 KNN 17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KNN은 17일, 롯데월드 부산 개장과 관련해 2건의 리포팅을 내보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이달 개장>은 앞선 KBS부산, 부산MBC와 마찬가지로 사전 운영 기간에 맞춘 홍보성 기사였다. 이어서 <오시리아 롯데월드, 교통대란 대책은?>을 보도했는데, 해당 리포팅은 개장 직후 교통 체증은 불가피하다며, 부산시의 17일 교통대책 발표를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동부산 교통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롯데 측'이라고 설명하면서 롯데 측에도 교통대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장 2주 앞두고 중장기적 교통 대책 발표 부산일보는 '효과 미지수'라 비판

롯데월드 부산 개장에 맞춰, 현란한 퍼레이드와 다채로운 놀이기구 시설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 하는데 그친 방송 뉴스와 달리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교통 대책에 주목했다. 두 신문 모두 18일 자 1면에 부산시의 교통 대책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먼저 부산일보는 <오시리아 연장선 2029년까지 완공>(3/18, 1면)을 통해 부산시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오시리아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시리아선은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후 순위 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노선들이 예타 조사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만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면에서는 롯데월드 측의 교통대책도 전달하면서 대중교통 연계 할인은 근본 대책이 아닐뿐더러 도시철도 구축 역시 장기 계획이라 당장의 교통난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짚었다.

부산시와 롯데월드 측의 교통 대책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고 5면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달했다. 그다음 순서로 롯데월드 부산 개장에 맞춘 홍보성 기사를 배치했다. KBS부산과 부산 MBC가 롯데월드 부산 개장 소식을 먼저 전달하고 ‘한편’이라며 교통대란을 겹다리로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국제신문도 18일 자 1면 <반송터널·오시리아선 6년 앞당긴다>를 통해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달했다. 롯데월드 부산 개장 소식은 8면 경제면에 배치했다.

지역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경제성 측면에서 후 순위로 밀렸던 2호선 오시리아선이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의지로 추진되게 됐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계획은 2005년에 수립됐는데, 롯데월드 부산 개장을 2주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교통 대책을 준비한 모양새나, 민자로 지하철을 연장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한편’ 내지는 ‘부산시는 교통대책을 발표했다’는 나열 수준 이상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KNN이 보도에서 언급했듯 ‘동부산 교통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롯데측’의 중장기적 교통 대책 마련 요구도 절실하다. 지역언론이 묻고, 따져주길 바란다.